문고 답하기 최신 기출문제 업데이트 도움말 프로그램 정보

표 -3

항목	정답	사용자	감점
위치(정렬)	왼쪽 정렬	양쪽 정렬	-3

입력 0

입력 0

항목	정답	사용자	감점
첨자		▽	0

주저 장기불황(a Long term Depression), 즉 L자형(반등 없는 불황지속)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.

1. U자형, W자형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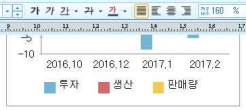
현재의 관심은 U자형과 W자형이다. U자형은 바닥에서 서서히 되살아나는 Slow Type 경기. W자형은 일시적으로 회복조짐을 보이다 다시 급하게 떨어지는 Bungy-Jump Type 경기를 의미(意味)한다.[1]

<표> 산업활동동향

(단위 : %, 증가율)

구분	투자	생산	판매량	비고
2016.10	9.2	11.7	5.3	
2016.12	-2.2	4.7	2.3	
2017.1	-8.8	2.2	2.2	
2017.2	-5.3	8.6	1.3	
평균	-1.78	6.80	2.78	

통계청이 발표(發表)한 '산업활동동향'에 따르면 경기선행종합지수(a Business Leading Composite Barometer)는 전달보다 0.1%포인트 상승, 16개월만에 플러스로 반전돼 경기전망을 밝게 했다.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.6% 증가하여, 제로성장(Zero Economic Growth)에 머물렀던 전월(0.1%)보다 크게 높아졌고 출하증가율(the Rate of Increase of Forwarding)도 4.4% 증가했다. 그렇지만 소비/투자 부문의 냉기는 여전하다. 지난달 설비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5.3%로 머물러 여전히 부진했다. 소비도 도소매 판매증가율이 전월 2.2%에서 1.3%로 낮아지고 내수소비재 출하증가율은 4.7%를 기록(記錄)했다. 재경부 당국자는 "회복조짐은 있지만 낙관할 정도는 아니다. 2~3개월 정도 추이(推移)를 더 주시해야 한다"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.



2. 경기회복의 변수

결국 분명 회복징후는 존재하지만, 장래는 불투명하여 속도도 아주 더딜 것이란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.

변수(Variables)는 두 가지다. 하나는 미국의 경착륙이고, 다른 하나는 국내의 HD건설이다. 두 가지 모두 풀린다면 국내경기는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접어드는 U자형으로 가겠지만,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지금의 회복조짐은 일시적 반등에 그쳐 다시 고꾸라지는 W자형이 불가피한 전망(展望)이다.

이상수 기자 sasulee@businessPaper.co.kr